금주의 법구-〈대반열반경〉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도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서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2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2호 2016년 2월 3일 수요일

"주목받는 은퇴자 특수출가 세심한 제도 설정 중요"

[기획] 기대만큼 우려, 은퇴자 출가 진단

조계종이 출가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격 추진하는 은퇴자 특수출가에 대한 불교계 일각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단 차원의 출가 진흥 대안 마련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함께 승려 노후복지에 대한 부담 증가, 기존 법계 제도와의 마찰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은퇴자 특수출가제도 입 계획 발표 후 종단 공식석상에서의 비판은 1월 27일 해남 대흥사에서 진행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나왔다.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회의에서 "소년출가와 청년출가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자 출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자 출가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출가 연령을 수정하는 방안만으로는 출가자 감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출가자 감소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퇴자 특수출가가 출가자 감소에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조계종의 경우 고령자에 대해 10여년 전부터 출가의 문을 넓혀왔다. 출가자 급감에 2006년 40세였던 출가연령 상한선을 50세로 올렸지만 매년 출가자 수가 100여 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원로회의 소위원회에서도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고령 출가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린 전력이 있고, 습의를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종단의 책임도 고령 출가자 증가 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 출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은퇴자 특수출가는 기존 50세 이하 출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출가자들은 행자교육원과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비구·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하지만 은퇴 특수출가는 이런 교육과정이 간소화된다. 특수 출가자들의 사회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도 마찰은 예상된다. 현재 조계종은 법계 직무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 은퇴자 출가가 활성화 돼 이들이 전문 분야 소임을 맡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가해 법계를 승급해 온 출가수행자와 갈등과 차별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은퇴자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전형 문제도 남아있다.

출가연령 상한에도 출가자 감소
흥선 스님 "은퇴출가 해법 아냐"
복지 증가·법계 불균형 등 우려

오심 스님 "정밀한 선발 있어야"
'법사' 유사한 직책 신설 제안도

조계종 출가상담사 가섭 스님은 "얼마만큼 내실 있게 교육과정이나 수행체계를 마련하는지에 은퇴자 특수출가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려되는 점은 출가로 인한 이혼 및 가족들의 문제 등이 있다. 조계종은 비구종단으로 정의된다. 은퇴자는 출가 후에도 가족이 있기에 부양문제 등을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승려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종회의원 오심 스님은 "조계종으로 출가를 원하지만 연령제한에 걸려 태고종으로 출가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도입 후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교육과 노후복지 문제 등도 전형과정에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조계종과는 달리 재가승 제도를 유지하는 태고종의 경우 고령자 출가에 대해 내부에서도 교육제도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고령자들이 승단에 정착을 하려면 승단의 연한만큼의 수행력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외양으로 본다면 차이가 없다"며 "아직까지 고령출가 관련 교육 등이 없어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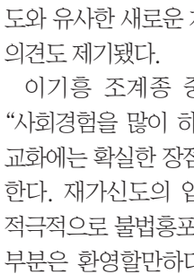
이와 함께 조계종 정체성과 기존 스님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법사제도와 유사한 새로운 계급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사회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법 교화에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신도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홍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은 환영할만하다"면서도 "은퇴출가 스님들이 교단의 중진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기에 정식 스님보다는 법사와 비슷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과 우려에 조계종 교육원은 특별법 발의에 앞서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은퇴자 특수 출가는 출가 진흥 정책의 한 가지 대안"이라며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높지만, 종단 내부에서 조율할 부분은 산재해 있다.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목 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예전 같으면 사찰서 보살폈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27일 가톨릭이 운영하는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해 따뜻한 자비심을 전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입양전문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 설립에도 나설 것을 밝혔다. 성가정입양원은 낙태금지를 밝힌 가톨릭계가 낙태금지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1989년 故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국내입양전문기관이다.

자승 스님은 "종단에서도 낙태 금지를 비롯한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밝혀왔다.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뜻에서 아이들 보살피고 해외입양을 막는데 힘쓰겠다"며 "불교계도 입양원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입양원 영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입양원 측에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글= 노덕현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네팔 꽃핀 자비나눔…"추위 두렵지 않아요"

현지 반야포교소 1월 26일
마지마을에 방한 담요 전달
本紙 기금으로 1백장 마련해

너빈 바르라챠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사진 왼쪽)은 1월 26일 반야포교소 봉사자들과 함께 신두팔촉 마지마을 주민에게 방한담요 100여 개를 전달했다. 방한담요는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해 진각종을 통해 전달한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1월 23일, 국내 못지않게 이역만리 떨어진 불교국가인 네팔에도 매서운 한파가 닥쳤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4월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피해로 집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이번 추위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한기를 느낀 너빈 바르라챠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네팔 반야포교소 대표)의 머릿속에는 언뜻 떠오르는 곳이 있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신두팔촉 마지마을이다. 이곳은 험준한 산악지역중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다. 특히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네팔중에서도 교통사정이 최고로 열악한 곳이라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지진 피해로 40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네팔 정부는 물론 봉사나 구호단체의 손길이 거의 못미쳐 마을 주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너빈 바르라챠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은 1월 26일 반야포교소 봉사자들과 함께 신두팔촉 마지마을로 달려가 방한담요 100여 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번에 지급된 물품들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하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서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지일 스님과 학인 일동이 네팔지진피해 돕기 구호 기금에 써달라고 본사에 기탁한 300만원을 진각종 측에 전달한 성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당시 기금을 전달받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진각종은 지진피해 당시부터 종단차원서 네팔 현지 포교사와 함께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에 기탁 받은 성금은 현지 네팔 JGO센터에 전달해 피해 지역 구호물품 구입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메일을 통해 현지 구호활동 소식을 전한 너빈 JGO네팔센터장은 "지난해 현대불교신문사서 기탁한 300만원으로 100장의 담요를 구입해 1가구당 2개씩 50집에 나눠줬으며, 의료품도 절실해 간단한 상비약도 함께 전해줬다"며 "이 지역 500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수량이지만 그래도 현지 주민들이 너무 기뻐해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